

## 한우

### 한우협, 관악구청서 한우 나눔 행사 개최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강성기 위원장)가 12월 17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한우 나눔 행사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악구 관내 소외계층에게 한우고기 840Kg, 한우곰탕 3,000개 등 3,2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한우사랑나눔봉사단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불우이웃을 방문하여 한우곰탕 배식과 돌보미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눠진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악구 관내 700세대에 전달되었고, 한우곰탕은 반석희망의집 등 16개소와 장애인 등 불우이웃 시설에 관악푸드마켓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강우 회장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한우 농가가 어렵지만 연말을 맞이하여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한우 나눔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번 행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고 한우농가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2013년 한우나눔행사를 통해 전국의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 26,540Kg(132,700인분)를 전달했고, 42,770명에게 사랑의 한우국밥을 전달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12. 17]

## 한돈

### 한돈자조금-홈플러스, 한돈 판매 인증점 운영을 위한 MOU 체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전국 139개의 홈플러스 전 매장에서 한돈 판매 인증점인 한돈존을 운영하기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돈 판매 인증은 수입육과 구별한 별도의 한돈 판매대를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돈 판매 인증을 통해서 홈플러스는 전국 139개 전

매장에서 한돈존을 운영하게 되며, 신규 점포도 자동으로 한돈 판매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대형유통점 내 한돈 판매 인증점은 105개소에서 총 244개소로 크게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신선한 한돈을 좀 더 손쉽게 접하게 되었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관리위원장은 “대형마트의 한돈 판매가 한돈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한돈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홈플러스 안태환 본부장은 “이번 한돈존 운영 MOU 체결을 통해 홈플러스의 한돈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이번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양계

### 양계협,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 착공식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11월 25일 해남군 소재 닭경제능력검정소 신축현장 및 해남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준동 회장, 박철환 해남군수,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양계협회 임원 및 도지회지부장 및 해남군 계곡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준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착공식이 있기까지 힘써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해남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2014년 검정연구소가 새롭게 완공되면 양계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능력검정소는 지난 1966년 서울 공릉동에서 산란계경제능력 검정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검정사업을 통해 닭 품종별 생산능력을 공정하게 검정함으로써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양계산업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안성에 위치했던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가 안성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질병방역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터전인 청정지역 땅끝마을 해남으로 확대 이전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해남군으로부터 최종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3. 11. 26]

낙농  
육우

##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성료

9차례에 걸친 낙농순회 토론회가 마무리 됐다. 낙농현안에 대한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토론회가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 충남 / 하계 조사료 작물 생산 지원 늘려야

지난 12월 13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협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지역 낙농순회토론회에서는 특별히 충남도청 축산경영팀장 최종덕 사무관이 행사장을 찾아, ‘조사료 자급화 3개년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대책’, ‘육우 광역브랜드·육성우목장 사업’, ‘방역대책 및 대가축 진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충남지역 낙농·축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여론수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지역 농가들은 하계 조사료작물 작업비 지속 지원, 조사료 장비 지원 확대, 환경규제 대비 지자체 차원에서 젓소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 및 처리기술 개발·보급, ‘참육우브랜드’ 고품질 장려금·운송비 지원 지속 실시 등을 최 사무관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농가들은 한·호주 FTA와 관련해 피해대책 마련에 협회활동을 집중해줄 것을 호소하고, 유우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조직적 대응, 수의사 처방제도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 경기남부 / 수급조절시 집유주체별 형평성 해결 우선

지난 12월 16일 경기 화성 남양농협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최근 환경규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듯, 강원대 라창식 교수와 농축산부 김정주 사무관의 낙농분뇨 자원화 및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관련 강연이 각각 진행됐다. 농가들은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 축사 개선

이 사실상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김정주 사무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낙농수급조절협의회 논의동향과 관련한 토론이 장시간 벌어졌다. 농가들은 집유주체·농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이 향후 제도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육우송아지 처리대책과 함께 유업체의 자조금 동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머리를 맞대고 생산자의 통일된 안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협회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3. 12. 18]

## 양봉 경기도 ‘양봉산업 발전 심포지엄’ 열어



경기도는 11월 25일 경기도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13년 양봉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심포지엄에는 윤화현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시·군지부장, 양봉농가,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

엄에서는 양봉산물(프로폴리스) 생산과 이용, 수벌 번데기를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 경기도 축산시책 및 양봉산업 육성방안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꿀벌은 기능성 식품인 벌꿀·프로폴리스 등 다양한 양봉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 화분매개 역할로 과수 등 타산업 발전과 자연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밀원수 감소, 기후변화, 고령화 및 규모의 영세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봉산업이 친환경 축산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의 7.5%에 해당하는 1675농가(14만824군)가 벌꿀·로열젤리·화분 등 기능성식품과 프로폴리스·봉독 등 천연항생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양봉농가에 80억여원을 지원해 211ha의 밀원수를 식재했으며, 양봉사·벌통·채밀기·저온저장고·화분건조기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민신문 김봉아 기자 [2013. 11. 29]